

정보보호 문화운동, 세계는 지금

지난달 10월 12~17일 페루 리마에서 제38차 APEC TEL 회의의 일환으로, '사이버 보안 인식제고 워크숍(Cyber Security Awareness Raising Workshop)'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등 정보보호 문화운동이 우수한 국가들의 활동현황이 소개되는 한편, 국가간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면서 APEC 회원국으로부터 집중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장세정 | 홍보전략실 주임연구원 sj@kisa.or.kr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전세계 2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APCE TEL(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은 회원국가별 정보통신 인프라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990년 설립돼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APEC TEL 내에는 크게 자유화 그룹과 ICT 개발 발전 그룹, 보안변영 운영 그룹 등 3개의 실무그룹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안변영 운영 그룹은 KISA 대응지원팀의 조진현 선임연구원이 그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필자가 참석한 사이버 보안 인식제고 워크숍은 각 그룹회의에 앞서 14일 개최했다.

▶ 한국 영향으로 각국 정보보호 주간 운영

각 회원국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현황을 비교해 보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등은 정보보호 문화 및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페루, 베트남 등 IT 개도국의 경우는 사이버 보안 인식 사업을 사이버 범죄 예방 측면, 즉 치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다만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도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6월 셋째 주를 정보보호주간으로 지정, 캠페인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펼쳐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펼쳐왔듯이 다른 APEC 회원국들에서도 사이버 보안 인식제고 강화 기간을 지정해 인식제고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국내 정보보호 문화운동을 소개하는 모습

각국의 인식제고 활동현황을 소개해 보면, 먼저 호주는 2006년부터 사이버 보안 주간(National E-security Awareness Week)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6월 6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정보보호를 주제로 TV용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해 풋볼경기 시 광고로 방영하거나,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었다. 또 엽서 등 인쇄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문화운동 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호주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웹사이트 운영, 사이버 보안 주간지정, 학교 교육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 역시 2004년부터 매년 10월을 국가 사이버보안 인식의 달(National Cyber Security Awareness Month)로 지정해 파트너 기관과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작년부터 인식제고 사업을 기획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은 정보보호의 날(Information Security Day)을 정해 부문별 정보보호대상 수여, 세미나, TV 및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인프라 부문, 기업 부문, 개인 이용자 부문으로 나뉘어 정보보호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가장 일찍 정보보호 강화주간을 선정해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정보보호 인식강화 활동이 타 회원국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사이버 보안인식 제고사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APEC 회원국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제작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협력방안이 모색됐으며, 향후 가시적인 활동 및 성과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별로 사이버 보안 정보제공을 위한 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호주는 Stay smart online(www.staysmartonline.gov.au), 일본은 총무성(www.soumu.go.jp/johotsusin/security/index.htm), 말레이시아는 eSecurity(www.esecurity.org.my)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KISA가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와 시큐어넷(www.securenet.or.kr)이 있다.

■ KISA 연구원 주도의 SPSPG 활동

한편, 이번 38차 회의는 KISA 대응지원팀 조진현 선임연구원이 보안번영그룹(SPSPG: Security and Prosperity Steering Group)의 부간사를 마치고, 간사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첫 회의기도 했다. 조 간사는 행사 기간 내 연속된 SPSPG 그룹 회의와 워크숍 등을 매끄럽게 진행했고, 21개국 전체 대표단이 참석한 총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력 창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당시 언론매체에서도 그를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관심은 조 선임임을 비롯해 KISA 내 여러 연구원들이 그간 침해사고 대응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인증, 중소기업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해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해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KISA 연구원들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정보보호 사례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각종 국제기구에서 정보보호 관련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제고는 물론, 국가간 협력 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S**

